

V. 日本 動靜

‘住專’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구제 금융을 반대하는 입장의 신문 社說

住專¹⁾處理 豫算의 철폐論

○ 「執行 凍結」이 아닌 「完全 削除」

- 1월 22일부터 개최된 국회는 「住專 國會」라 불리울 정도로 6,850억 엔에 이르는 住專 不實債權에 대한 재정 지원이 포함된 96년도 예산안 통과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음
 - 여기서 예산의 「집행 동결」이란 근본적으로는 지출을 전제로 하여, 앞으로 조건이 충족될 때에 동결을 해제함
- 「완전 해제론」은 신년도 예산안에서 구제 금융을 전면 삭제하고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주장. 나아가 國政監査權을 발동해서 관련자에 대한 행정 책임을 철저히 한 후에 與野 합의를 전제로 한 정부 금융 지원을 補正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주장함 (「朝日新聞」, 1.23)

社會黨이 해체되고 출범한 「社民黨」은 新黨 合黨을 위한 과도기적 정당

「社民黨」출범의 向方

○ 新黨사끼가케와의 合黨을 위한 포석

- 많은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50년 전통의 社會黨을 해체시키고 「社民黨」으로 새출발할 수 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냉전 체제 붕괴에 의해 社會黨의 존립 기반이 무너진 데다가 小選舉 제도로 치루어지는 총선거 이전에 新黨 합당이 절실했기 때문임²⁾
- 新黨사끼가케는 총선거에서 勞組票를 의식해 「社사 合黨」을 지지하는 찬성과와, 이념·정책이 전혀 다르고 총선을 겨냥한 「野合」으로 보는 반대파로 2분된 상황임
 - 결국 新黨사끼가케 側이 당의 분열을 감수하고라도 社民黨과의 합류를 결행할 것인가의 여부가 이번 총선의 최대 분수령이자 社民黨의 死活을 좌우하는 관건이 됨 (「朝日新聞」, 1.20)

1) 住專(주택전문용자회사) 問題 : 최근 일본 금융 산업 부실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7개 住專회사의 부실채권 처리가 사회 문제화 되자, 작년말 일본 정부는 구제 금융을 신년도 예산에 포함시킴

2) 自民黨 독주下에서 第1 野黨이었던 社會黨은 中選舉區 제도하에서는 「2위 당선」이 보장되었으나, 小選舉區 제도가 도입되자 「2위 당선」이 없어짐

「情報 都市」는 新통신망의 集積이 필수 조건임

임박한 사이버 스페이스 革命

○ 기존 통신망의 한계

- 전화 회선에 의존한 인터넷은 이미 한계에 달하였으며 光섬유에 의한 케이블망 구축이 통신 인프라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었음
- 종래의 都市나 首都의 개념이 희박해지는 대신, 앞으로는 새로운 光섬유 통신망의 확보가 지역의 비중을 결정함. 이에 따라 사이버 스페이스로서의 「정보도시」, 「정보수도」의 개념이 생겨남
 - 사이버 스페이스는 지역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情報 首都」건설이 가능함
 - 사이버 首都의 조건은 많은 양의 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의 확보임

○ 활발한 新통신망 구축 움직임

- 일본의 각 地自體는 新통신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이다마縣에서는 일본 최초로 新도심 전역에 光섬유망을 구축할 예정임
 - 따라서 사이다마 新도심은 머지않아 일본의 「사이버 首都」가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日本經濟新聞」, 1.23)

하시모토 新내각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 재건과 行政改革

하시모토 新내각, 「대담한 개혁」 강조

○ 「경제 再建」 우선

- 하시모토 수상은 취임 시정 연설에서 정치·경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역설하였음
 - 중요 과제로서는 「강력한 일본 경제의 재건」, 「長壽 사회의 건설」, 「자립 외교」, 「行政 개혁」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역사 인식」에는 침묵

- 금년이 전후 50년의 「새로운 도전의 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과거 수상들이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역사 인식」에는 직접적인 표현을 삼가고 「과거의 짐을 피하지 않겠다」는 정도에 그침

(「朝日新聞」, 1.22)